

광학산업, 참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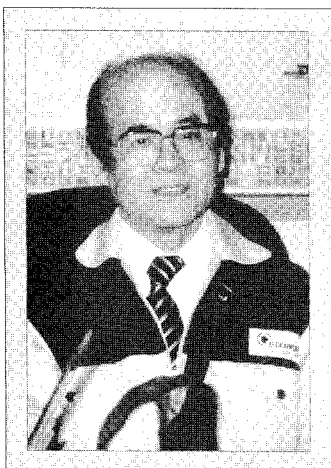
-한국광학기기협회 회장과 부회장 부임을 기해서-

글/부원광학(주) 회장 박춘봉

필자가 업무의 일선에서 물러난 지 2년이 넘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것은 누구에게 무슨 부담을 주지는 것도 대단한 자료를 남기겠다는 것도 아니다. 단지 광학산업이란 업계에서 20여 년간 몸을 담은 늙은이로서 그래도 남겨두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몇 자 적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광학산업의 씨앗을 뿌린 것은 서울 구로동에 소재했던 대한광학이라고 한다. 60년대 말에 창업한 이 회사가 70년대 말쯤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회사가 되었다고 하고 한때는 쌍안경의 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선두였단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군용 조준경, 관측장비 등을 비롯한 광학장비 국산화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70년대 말에는 우수한 광학산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오늘날 광학산업의 저변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 회사가 80년대 초에 문을 닫게 된다. 당연히 그곳에 몸 담았던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즈음에 마산지역에는 삼양광학과 신한공업이라는 중견 규모의 광학회사들이 활동을 시작한다. 삼양광학의 경우, 지금도 카메라 교환렌즈를 생산하고 있지만 한때 꽤 정밀하여 까다로운 제품에 속했던 카메라 교환렌즈를 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커왔다. 신한공업도 지금은 아이템 자체가 경쟁력을 잃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쌍안경, Telescope 분야에서는 꽤 활발한 활동을 펼친 중견 기업이었다. 두 회사 모두 90년대 어려운 고비를 겪으며 사세가 매우 위축된 것이 사실이다.

70년대 말, 일본의 미놀타와 제휴하여 삼성정밀이 카메라 생산을 시작하면서 한국도 본격적인 카메라 국산화의 막을 열게 된다. 그렇지만 알려지기로는 회사의 경상 수지는 10년여를 적자 경영을 해야 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올림픽이 열린 88년을 기점으로 89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흑자경영으로 돌아섰을 정도로

매우 힘든 길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삼성이 아니
고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90년대 들어와서 삼성이 활발하게 카메라 사업을 전개
하면서 마산, 창원지역에 중소부품업체가 육성되기 시작한
다. 특기할만한 일은 대한광학 이후에 매우 저조하던 고급
기술인력의 육성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광학산업에 고급인력이 본격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90년대를 전후해서 일본 굴지의 광학회사들이 한국의 대
기업들과 제휴하여 광학산업에 불길을 일으킨다. 캐논이
LG전자(구. 금성사)와 올림푸스가 현대전자와 니콘이 아남
전자와 제휴해서 카메라 국산화를 시도한다. 그러나 현재
는 삼성디지털이미징(구. 삼성정밀)의 천진공장 이외에는
한국산 카메라는 모두 착근이 안 된 상태이다. 삼성디지털
이미징만이 유일하게 남아서 우리나라의 카메라 산업명맥
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회에 세계 광학시장에서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점유
율은 얼마나 되는지 짚어보고 가자. 정확한 계수를 갖고 있
지는 않지만 필자가 접촉하고 있는 일본이나 대만의 광학
쟁이들의 일치된 견해는 이렇다. 일본이 세계광학시장
70%를 점유하고 있고, 그 중 중국과 대만이 7~8%, 한국
이 3~4%,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들을 10%대로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세계시장 점
유율은 자동차, 가전 등 다른 산업의 점유율에 비해 상대적
으로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삼성 이외의 큰 기업들이 광학산업에 진입했다가 결실을
못 본 이유가 뭔지를 우리나라 광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들이 짚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순조롭게 광
학산업을 영위해 왔었다면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경쟁력이
현재의 대만이나 중국에 현저히 뒤쳐질 정도까지 열악하지
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곧 시장, 즉 채산성의 문제, 기술
인력의 문제,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이 광학산업을 정착시키기 어렵게 만들었다고들 말한

다. 좀 다른 측면에서는 부품업체가 별 문제없이 뒷받침이
가능했었다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많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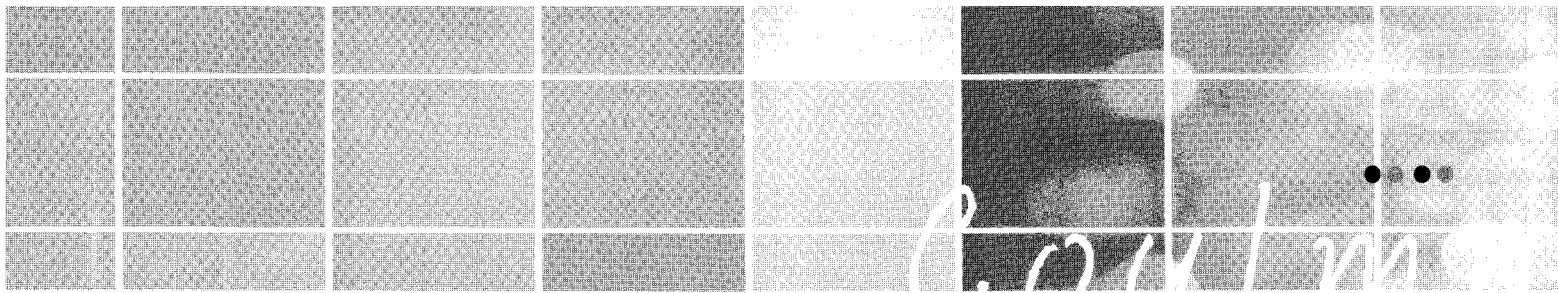
여기서 부품산업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고 가자.

“레이저프린터에 들어가는 검은색 분 알조차 일본에 의
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부품소재산업
전을 여는 정준석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장의 말이다. 그
는 “원천기술이 부족해서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대일 의존
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완제품 수출
의 증가가 대일 수입의 증가를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국의 부품에 의존하는
조립업체가 갖게 되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라고 한다. 납기
가 잘 안 지켜진다거나 환율변화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단
가의 변동, 그리고 조립체의 성능변경에 따른 부품사양의
유연성 있는 변화가 쉽지 않다고 한다. 기업의 비밀이 강조
되는 오늘날 보안의 취약성도 대단히 중요한 고려의 대상
이다. 이러한 취약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 조립업체 입장에
서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외국제품을 써야하는 고충 또한
이해를 해야 할 일이다.

부품의 중요성은 누구나 하는 소리이다. 가령 1000개
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조립체가 999개의 부품은 A급으로
조립되고 1개의 부품이 B급으로 조립되었다면 그 조립체
는 B급으로 판정된다는 것이다. 품질의 중요성을 말하는
대목이다. 조립체라는 것이 당연히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부품의 가격일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부품가격을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국의 저가
공세였다. 완성품 제조 회사로서 가격문제는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직접 부딪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값싼 중국의 부품을 쓰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왔다. 때문
에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확실한 품질보증은 쉽지 않고, 인
건비를 비롯한 제반여건이 중국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것
이 현실이다. 이렇게 단기적인 눈앞의 현실은 난제 투성이



다. 그러나 많은 식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부품 국산화에 힘을 써야한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는 정부나 완성품 제조업체나 부품업체나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부품국산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누구나 같은 생각이다.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구실로 10여 년 전부터 완성품업체, 조립업체 할 것 없이 중국 진출이 유행병처럼 밀려 왔었다. 일본도 중국 진출이라는 같은 열병을 앓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2000년쯤으로 기억된다. 우리 회사의 중국공장인 榮成富源小堀(고보리)電光有限公司의 30% 지주(持主) 회사인 일본의 (주)고보리(小堀)제작소 회장의 말씀이 기억난다. 이 분은 지금은 고인(古人)이 되셨지만 일본에서는 우수한 정밀광학부품회사의 창설자이셨다.

“지금 일본의 우수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밀려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다. 우선 눈앞의 이익, 단기적인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 진출하지만 언젠가는 값진 기술만 다 쏟아 붓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들이 자신의 임기 내에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단기적인 채산성을 맞추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오너는 절대 이런 짓을 안 한다”

나는 그때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겠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입장이었고 나도 그로부터 2~3년 뒤인 2002년 남들처럼 중국에 투자를 했다. 그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 일이지만 일본의 고보리(小堀)에서는 우리의 중국공장에 30% 만큼의 자본(資本)참여도 해 주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에 투자한 일본기업들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유턴(U-turn)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내에 남아 있었던 기업이나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이나 독자적인 경쟁력 유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필자가 아는 작은 광학부품업체들도 착실히 정착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부품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를 비롯한 완성품 제조업체가 적극 나서서 중소부품업체의 육성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조립업체의 실무자가 부품 국산화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가야할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완성품의 안정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조립업체에 의한 부품업체 육성이지가 관건이고, 이 문제의 성패는 완성품업체 실무자의 열의와 의식의 문제라는 말이다.

